

## 동학농민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다

- 전시기간\_ 2016. 11. 18. ~ 2017. 5. 31
- 전시장소\_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 전시구성\_ 1파트 : 19세기 동아시아, 서세동점의 시대  
2파트 : 위기에 대처하는 조선·청·일본 삼국의 풍경  
3파트 : 제국주의에 맞선 동학농민군



이번 특별전은 19세기 서세동점기(西勢東漸期) 서구 제국주의 열강 침략에 따른 조선·청나라·일본 삼국(三國)의 대응과 제국주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동학농민군의 응전(應戰)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동아시아적 의미와 세계사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해 인사  
이승우 이사장

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기획① 명사대담  
고은 시인

기획② 지역대담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찾아서

참여자 유족 인터뷰  
최정길, 참여자 최성철의 손자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 금강, 서시 중에서

신동엽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960년 4월

歴史를 짓눌던, 검은 구름장을 찢고

永遠의 얼굴을 보았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하늘 물 한아름 떠다,

1919년 우리는

우리 얼굴 닦아놓았다.

1894년쯤엔,

돌에도 나무등걸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하늘,

잠깐 빛났던 당신은 금세 가리워졌지만

꽃들은 해마다

江山을 채웠다.

이 작품은 1967년 신동엽 시인이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창작·발표한 「금강(鎭江)의 서시(序詩)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이다. 신동엽의 「금강」은 1860년 창도된 동학의 평등사상이 19세기말 혼란스러웠던 조선의 사회상황과 만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민족항쟁으로 활짝 꽃피는 역사적 맥락을 형상화(形象化)한 장편서사시(長篇敘事詩)이다.

신동엽(申東暉) 1930~1969.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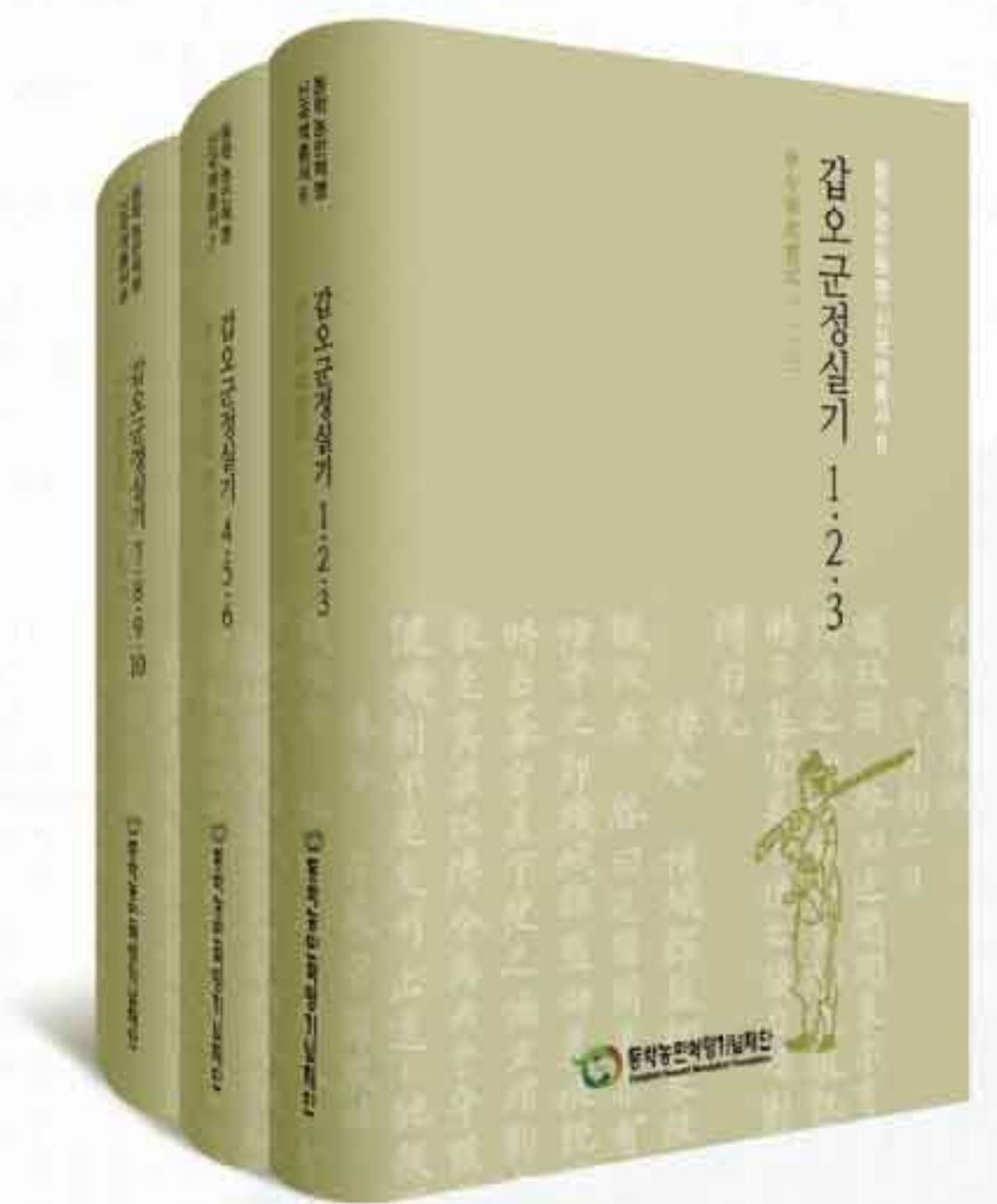
신동엽(申東暉) 1930~1969. 충남 부여 출생으로 전주사범학교, 단국대학교 사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장시(長詩) 「이야기하는 장미꽃의 대지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아사녀(阿斯女)」(1963), 시극(詩劇)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금강(鎭江)」이 있다.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1975.

#### 【편집자주】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1894년 이후 한국문단에 창작·발표된 시 작품들 중에서 연대기별 대표성을 지닌 작품을 소개한다.

### 「갑오군정실기 (甲午軍政實記)」

번역서 발간



| 최근 발굴된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번역 |

원문과 국역(國譯) 내용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전3권)

「갑오군정실기」(전10冊)는 조선정부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과정 중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의 공식 기록이다. 전 3권으로 발간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6~8권)에는 양호도순무영이 설치된 1894년 9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정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 『석남역사 (石南歷事)』 기탁

지난 11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석남역사(石南歷事)』(박문규著)를 기탁 받았다. 기탁자 박남순은 유물의 저자 박문규(朴文圭, 1879~1954)의 손자이다. 『석남역사』는 전봉준장군 제자였던 박문규가 1894년 혁명 발발 당시 고부 지방에서 직접 겪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신동엽, '금강, 서시 중에서'
- 04 새해 인사  
이승우 이사장
- 06 포토토픽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2016년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3기 제1차 이사회, 3기 제2차 운영위원회
- 08 기획1 명사대담  
고은 시인
- 21 재단 포커스  
이사회 개최 등 주요사업 안내
- 24 참여자 유족 인터뷰  
최정길, 참여자 최성철의 손자
- 30 유적지 탐방  
충북 보은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 38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 45 기획2 지역대담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찾아서
- 52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 56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COVER STORY

####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이 탑은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상징 기념탑이다. 보은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2007년 건립하였다.



# 「새해 인사」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새 아침을 여는 닭의 해,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3기 집행부가 출범한 첫 해였습니다. 올해 제3기 기념재단은 제1기와 제2기 기념재단 때부터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사업,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참여자 유족 발굴조사 및 등록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에 힘써왔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 사업추진 성과를 되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가슴 뿌듯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기틀이 될 국가기념일 제정사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아쉬움도 많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추진의 기틀이 될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국 각 지역의 참여자 유족, 전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등 모두의 힘이 한데 모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념재단은 올해에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의 힘을 한데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첫 새벽을 활짝 연 일대 사변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나아가 갑오선열께서 높이 올렸던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은 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빛나는 정신문화 유산입니다. 19세기말 국내외적으로 조성된 어려운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했던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면서 새해에도 더욱 힘차게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 뜻하신 일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 2016년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기 제1차 이사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기 제2차 운영위원회





동학농민혁명은 기념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더러 도리어 독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역사는 그 뜻이 아무리 깊고 높아도 헛것입니다.  
 동학을 역동적인 실천, 불꽃으로 기화(氣化)한  
 전봉준의 정신, 그게 중요합니다.

이번 호 명사대담은 고은 시인을 만나 역사와 사상, 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로 진행되었다.

- 일시 : 2016년 9월 5일
- 장소 : [고은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대담 : 고은 시인, 문병학 기념사업부장



고은 시인

**문병학** 선생님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지난달 말 슬로베니아에서 펼쳐진 시축제(詩祝祭)에 다녀오셨  
 지요? 아직 여독이 풀리기 전일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  
 들을 위해 선생님 근황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오.

**고은** 먼저 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념사업회의 창  
 립 무렵 첫 회장직을 제안 받았으나 사절한 일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내 문학에 대한 절박성과 또  
 여러 가지 세계 관련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줄곧 내 고향의 이 위대한 신세계를 위한 농  
 민혁명을 기리는 일에 내 실천을 바치지 못한 사실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가  
 아닌 이이화형(吳)이 이 사업의 초대(初代)를 잘 꾸려가셨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나 어떤 응답은 한두 번이 아니게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한 내 판단이나 견해 표백의 답론은 좋아해도 나 자신에 대한 것은 단념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난날의 내 삶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기찬성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척 싫습  
 니다. 그래서 나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뉘우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뉘우  
 침조차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통틀어서 시인으로서 창작에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라는 자문(自問)에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건, 사람들은 내가 많  
 은 작품을 썼다고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 작가로서의 시간보다 작가의식을 놓아버린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싶기 때문이지요. 1960년대는 허무 속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거의 술집  
 에서 보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현실과 모순덩어리였던 한국사회를 변혁해야  
 한다는 돌연한 현실의식으로 바람 찬 마당에 뛰어들어 정작 작가로서의 시간을 너무 갖지 못했  
 습니다.

그나마 틈나는 시간을 내어 멈추지 않고 작품을 써온 것이 스스로 가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어떻게 작가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 하나 하  
 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작가의 질은 시간의 질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  
 축제와 문학강연 등의 초청을 받아 나다니는 게 80-90회쯤은 될 거예요. 수십 개 나라를 다녔는  
 데, 그런 시간에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작품을 쓰지는 못합니다. 문학 강연을 하고 문학 관련  
 공연에 참석하는 것은 독자와 만나는 시간일 뿐 작품을 쓰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지  
 요. 그 화려한 무대들은 의미야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창작의 시간을 허비하는, 큰 결핍의 시  
 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초청을 받아들이는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어떤 초청은 미루기도 하고, 또  
 어떤 초청은 사양하기도 하는데, 사양하면 무척 섭섭해 해요. 가령 중남미의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건가라는 항의도 나  
 와서 참 곤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6번의 해외 일정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미 5번의 해외 초청에 다녀왔어요. 루마니아, 중국 항저우, 슬로베니아에 이어 9월 중순에는 미국 국회도서관과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시행사가 있었고, 10월 초에는 대만에서 초청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11월 하순에는 중국의 심천과 광저우 시축제에 가야 합니다. 기왕에 약속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내년 상반기에 초청받은 스코틀랜드의 시축제는 그 전에 로마문학제에 꼭 참석해야 할 일이 생기면서 후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밖에도 베트남과 프랑스 등 몇 나라의 초청과 행사가 있지만 참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잘 짜서 작가로서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공부하고, 글 쓰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문병학**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을 포함해서 수백 권의 저작물을 상재하신 선생님께서 작가로서 창작 활동에 모든 것을 다 쏟지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하시니 저처럼 창작에 게으른 후배들은 낮 뜨겁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담 시작하자마자 회초리를 맞고 시작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웃음)

**고 은** 우리 근·현대 문학사를 보면 작가들의 생애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동시에 작품도 중단되었지요. 이를테면 김소월 시인은 30대 초에 자살했고, 이육사는 한참 작업할 나이에 옥에 갇혔다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윤동주도 20대 후반에 옥사(獄死)했지요. 이상(李箱)도 스물일곱에 객사(客死)했고, 정지용 시인도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총살당했습니다. 월북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총살당한 것이라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극심한 부침(浮沈)으로 인해 남긴 업적이라는 게 겨우 알팍한 시집 한두 권, 시집 한 권에 수록된 시가 30편 정도인데, 이



렇듯 한국 근·현대 문학사 자체가 중단된 상태, 미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다작(多作) 시인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근·현대문학사에 대비해 봤을 때 내가 쓴 작품을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쓴 작품은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가난하지요. 빅토르 위고의 시도 몇 천편이 됩니다. 괴테의 작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계문학사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은 보편적인 함량을 달성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홍명희의 『임꺽정』도 장편서사의 세계인데 미완으로 끝난 것을 북에 있는 손자가 나중에 완성시킨 거 아닙니까?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도 미완이었는데 북쪽에서 누군가가 마무리해서 완간됐지요. 이렇게 우리나라 작가들의 생애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세계사의 모순이 다 모여드는 협곡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작가들은 비운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자신의 운명에도 소홀했고 때로는 그런 시대의 격랑에 대응하는 힘이 모자란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한국전쟁 이후 불완전하지만 휴전된 체제에서 살아왔고, 혼란스러운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불안한 당대의 체제가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시련 속에서도 작품을 쓸 기회는 수시로 보장된 셈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작품을 창작한 것이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던 우리 문학사의 결핍을 조금이라도 메워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사적인 나의 문학행위가 공적인 의미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시인이나 작가들이 견지해야 할 중요한 자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습니다.

**문병학** 수년 전에 4,000편이 넘는 작품으로 이루어진 대하드라마 시집 『만인보』(萬人譜)를 완간 하셨지요? 지난 1980년 중반에 시작해서 30여 년이 걸린 『만인보』를 두고 문학평론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한국문학의 빛나는 역작”이라고 스스로없이 말하면서 “고은의 문학세계는 극심한 굴절과 부침(浮沈)이 유난스러웠던 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고 은**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의미부여 등은 어느만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속으로는 『만인보』를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80년대 중반 감옥에서 풀려나와 결혼한 후 그 황홀했던 시절에 『만인보』 작업을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살았던 지난 날 같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렵 나에게서 책이 꽃피는 책꽃이와 원고지가 놓여있는 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꽃피는 마당도 있었지요. 의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인보』작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인보』는 사실 내가 평탄한 일상적인 삶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나온 절실한 구상이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가 나를 내란음모죄 계엄위반 및 계엄 교사 등의 중죄로 몰아 육군교도소 특별감방에 처넣어 칠흑의 암흑 속에서 구상했지요.



그런데 작품을 시작했던 1980년대 중반에 『만인보』에만 전념했으면 이미 90년대에는 완간했을지도 몰라요. 첫 3권을 내고 기자들과 만나 ‘30권으로 완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기에 제가 해찰을 많이 습니다. 80년대라는 시대는 너무 너무 가팔랐습니다. 글쓰기 작업에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0년대로 넘어온 후에야 15권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다행인 것은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만인보』에는 80년대 나의 태도, 90년대 이후의 나의 태도, 20세기 세기말의 나의 태도, 그리고 21세기 내 태도가 각각 반영되게 되었어요.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 반드시 십진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대체로 십년 단위로 사람의 정서나 사회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인보』는 나의 변화된 정신현상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30권을 마무리했어요. 『만인보』는 외국에도 우리말 그대로 ‘만인보’로 알려져 몇몇 번역서에는 그걸 그대로 제목으로 쓰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현대 고전시리즈의 외국문학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또 최근에는 파리의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역사학과에서도 강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문병학**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이 『만인보』를 “20세기 한국문학이 낳은 최고의 역작”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굴절과 부침이 유난스러웠던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인물들, 그 삶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 은** 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어두웠지만 20세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매 한가지로 어두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자기들 역사만 알고, 다른 나라 상황을 살필 겨를이 없이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딱히 아프리카나 유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열려있는 것 같기도 해요.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만인보』를 통해 비로소 한국 사람들이 식민지로 살았으며, 세계전쟁으로 비화된 비참한 전쟁을 겪는 등 험한 세상을 살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병학** 『만인보』는 국외(國外)로 굴절 많았던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겠지만, 국내(國內)에도 만인(萬人)에 대한 선생님의 기록이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커다란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본업인 시 쓰기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동학농민혁명에 홀딱 빠져 1993년부터 지금까지 24년째 기념사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세계사적 차원에서 구축된 동서냉전체제시기를 거치면서 왜곡·축소된 채 역사의 뒀안길에 버려져왔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적 자각이 높아지면서 1963년 10월 정읍황토현에 기념탑이 세워졌고, 10월유신 이후 혼란스럽던 정국에서 1973년 11월 공주우금치에 위령탑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도 신군부정권에 의해 정읍황토현에 기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북 정읍을 비롯하여 강원도 홍천, 충남 태안 등에서 민간의 기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회적 여건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의 기념사업이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1994년 혁명 백주년 때문이었습니다. 1986년 서울에서 역사문제연구소가 설립되어 소장학자들에 의해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기에 서울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역에서 40여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체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줄곧 동학농민혁명과의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시작하던 무렵 선생님의 시 ‘역사로부터 돌아오라’를 읽었고, 그 후로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떠올리곤 했습니다.

벗들... / 역사로부터 돌아오라... / 이제 동학도 3.1운동도 그만 말하고 / 그 역사로부터 돌아오라 / 아무리 거기에 커다란 뜻 나뉘어도 / 그것은 그것일 따름이다

역사가 커지면 / 역사가 무거워지면 / 오늘이 없다 / 벗들 역사로부터 돌아오라 / 아무리 발길로 차도 동티나지 않는 / 해골의 역사로부터 / 관념의 높으로부터 / 가장 용기 있는 듯한 착각으로부터 / 과장으로부터 / 거짓으로부터 돌아오라

가장 잘 발달된 이유로부터 뛰쳐나와 / 그 기술로부터 뛰쳐나와 / 한낱 벽찬 역사의 길 가야 한다 / 압록강도 청천강도 대동강도 임진강도 영상강도 탐진강도 섬진강도 남강도 / 아 낙동강 7백 리도 / 두만강도 / 이윽고 그 수많은 물들 바다로 가야 한다.

고은, 「역사로부터 돌아오라」 - 부분, 『네 눈동자』, 창작과비평사, 1988

선생님은 이 시를 통해 ‘우리들이 발 딛고 있는 현실과 괴리된, 박제화 된 역사인식’을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명제를 떠올리게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혹은 역사를 기념하는 일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고 은** 그 시를 썼던 1980년대에, 나는 과거라는 것, 그 과거의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시인의 체험을 통해 그것은 현재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기념의 뜻에 대해서도 펍 너그러워졌는데, 1980년대에는 무엇을 기념하는 행위를 아주 위선적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동학농민군이 되어야지 기념만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 무렵의 내 생각을 담은 그 시를 잘 기억하고 있군요. 1980년대는 시대 자체가 벽났습니다. 그때는 아주 뜨거워졌던 시절이었어요. 나도 뜨거워져서 지나간 과거로서의 역사보다 당대 현실에 대한 집중이 막강했습니다.

**문병학** 역사를 단순하게 기념만 한다면 의미가 반감될 거 같아요. 역사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사건 이후 시대상황에 따라 재해석되는 '해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차원의 시간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기념하는 행위는 과거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현재화(現在化)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80~90년대 추진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기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반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에서 펼쳐진 기념사업에 힘입어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실로 110년 만에 명실상부한 복권을 이루어냈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사의 현재화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고 은** 황현의 『매천야록』은 놀라운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의미는 굉장히 큼니다. 다만, 동학농민군을 비적(匪賊)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봉건적 한계이지만 당시 황현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에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구한 김상기 서울대 사학과 교수의 역할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동학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아직 동학농민혁명이 정당화되기 이전이었어요. 황현과 김상기 박사는 동학농민혁명을 대하는 관점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황현은 조선왕조 입장과 철저히 일치한 역사관점이고, 김상기 박사는 농민적 관점에 더 힘을 두었지요. 그러나 동학이라는 종교적 측면으로 다소 치우친 감이 없잖아요. 갑오년 전후하여 조선정부는 물론이고 청나라·일본·미국 등 각국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 따라 민란, 반란사건, 동비의 난 등등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는 이처럼 조선왕조나 일본, 청나라 등의 역사인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거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역사인식의 전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갑오년 역사에 대해 정식으로 눈을 떠, 이것을 의로운 항쟁을 통해 근대를 지향한 세계사의 여러 농민전쟁과 유사한 근대혁명으로 생각해서 그 역사적 위상을 높인 것은 1980~90년대 사회정치적 상황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내 친구이기도 한 고려대 강만길 교수 같은 사람들의 연구 성과가 그러한 역사인식의 전변을 가져오게 하는데 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열렬한 재야사학의 1인자 이이화 형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아주 당연하게 동학란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진취적인 학자들의 사관에 의해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자리매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동학과 농민전쟁을 결합시켜 인식한 것인데, 사상적으로 동학(東學)은 당시 조선정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학은 서세동점시기에 서양사상에 대응해서 나온 조선민중의 주체적인 대응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학(西學)은 하늘에 사람이 속하지만 동학은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라는 점입니다. 서학과는 달리 동학은 사람과 하늘이 일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대단한 거예요. 동학은 자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오만하기까지 한 독보적인 사상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이나 어떤 천신에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죠. 엄청난 전복(顛覆)입니다. 유교에서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선조들에게 예를 하잖아요. “나”는 없어져버리고, “나”는 오직 조상에 대한 종복으로만 남죠. 동학이 그것을 전복시켜버린 겁니다. 내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오만하기까지 한 동학사상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시(侍)입니다. 모시는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시(侍), 이걸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 거예요. 서양의 평등사상은 기계적인 평등인데, 동학에서 말하는 평등은 너와 내가, 서로가 서로를 모시는 평등입니다. 이걸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불교에서는 등(等)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평등은 곧 무등(無等)입니다. 무등이 진짜 평등인 거죠. 그런데 동학의 모시는 내가 너를 높이는 것으로 이루는 평등입니다. 내가 하늘인데 상대에게도 하늘이 들어있



으니까, 피차 다 하늘로 드높여지는 평등이에요. 서로 예의를 갖춰서 평등해지고, 예의를 담아 공경한다는 겁니다. 서로 같이 모시는 게 시(侍)인 것입니다. 이걸 아주 궁극(窮極)에 이른 평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에서는 이것이 아주 불온하기 짝이 없는 사악한 이념이라고 인식했던 겁니다. 실제로 동학을 통해 조선 농민들은 근대적 자아에 눈을 확실하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동학이 반란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한반도는요, 세계문명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자랑스러운 땅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뭐하나 발상(發祥)된 게 없습니다. 황하문명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황하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이집트문명, 인더스문명...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문자도, 우리의 자생문자는 없었습니다. 물론 고대에 가림문자라는 것이 있었다는 설이 있지만 그 파편 하나 어디 기록으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성씨도 우리 성씨가 아니고 전부 중국성씨입니다. 본래 우리는 성씨가 없고 돌쇠, 바우 이런 식으로 이름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부터 성씨를 받아들인 거지요. 우리 민족은 본래 시베리아 부리아트 샤머니즘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서 신명이 가장 잘 내리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인가 우리나라 점쟁이들은 점을 잘 치지요. 시베리아 바이칼 샤머니즘이 중국에서는 학술로 나아갔는데, 우리에게 신명으로 왔습니다. 그 신명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종교와 처음 만납니다. 저 사막을 건너온 인도의 불교와 만난 것이죠. 그 다음엔 도교가 고구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노자사상이 나중에 종교화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조금 뒤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송나라 때 주자학, 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온 겁니다. 본래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원시유교였습니다. 근데 이 주자는 송나라 오랑캐한테 밀려서 항주, 남송으로 남하했어요. 이때부터 주자학이 국가 이념이 된 겁니다. 나라가 약해지니까 큰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커져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교를 이데올로기화 한 것입니다. 마침 불교의 화엄학 정통이 있으니까 논리구조가 잘 되어 있는 화엄학 체계를 원용해서 유교를 주자학, 성리학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동양의 유불선 종교사상이 혼재된 상태의 고대한국에서 최치원이 그것을 합성시켜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종래의 샤머니즘과 접촉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유불선과 풍류를 합해서 만든 신선사상이지요. 타지에서 온 것을 가지고 완전하게 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 흘러서 조선조말 최제우의 동학, 시사상(侍思想)으로 꽃이 핀 것입니다. 동학을 사상으로 꽃피운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대에 와서 아시아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는 동학과 같이 이런 대단한 사상이 없습니다. 일본은 유교를 비즈니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얘기가 사상사적으로 나갔는데, 되돌리자면 최치원은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최견 일이라는 사람으로 경상도 출신으로 신라의 6두품이었어요. 최견일이 신라에서 소외받은 변방인 전라도 군산으로 파견되어 군산에서 최치원을 낳았습니다. 최치원은 늦둥이로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인 최치원이 어릴 때부터 문자를 줄줄 꿰는 신동이었어요. 최치원의 아버지

는 재주 많은 둘째 아들의 장래를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보내고 싶어했으나 그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빈공과”라고 하는 유학제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변국가의 왕자나 왕실 친족을 유학형식으로 받아들여 중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걸 예방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인질유학제도입니다. 그런데 왕자나 고관대작의 자식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팔시나 받는 당나라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족을 사칭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똑똑한 평민들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신라 후기에는 왕실이나 귀족 신분이 아니라도 재능 있는 청소년이 대신 갈 수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 최치원의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라로 유학 보냅니다. 당나라에 들어간 어린 최치원은 빈공과에서 장원을 해버립니다. 이전에 발해가 2년 동안 장원을 해서 신라가 기가 죽어 있었는데, 최치원이 장원을 하니 신라는 어깨가 으쓱해졌지요. 그런데 후에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왔을 때 신라 국내파들은 최치원을 견제했습니다. 진성여왕이 인재등용을 하려해도 6두품 자식이라고 국내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치원은 전라도 태인 현감으로 쫓겨 옵니다. 유배살이 온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태인 현감을 지낸 뒤 최치원은 해인사로 갔고 그후 국내산천을 유람하며 신선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영남과 호남은 이(理)와 기(氣)로 서로 다릅니다. 영남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호남은 기가 강해서 동적입니다. 최치원의 학(學)은 이학(理學)입니다. 유교도 이학이니까요. 그런데 전라도는 기(氣)가 강합니다. 호남은 세계를 기로 봅니다. 기(氣), 이것은 오늘날의 우주 물리학과 같은 거예요. 기는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모든 명사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理)의 땅인 경상도에서는 최제우가 나왔고, 기의 땅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나왔습니다. 최제우는 동학사상을 창도한 후 대구에서 처형당합니다. 그 동학을 널리 알린 사람은 2대 교주 최시형이었는데, 그 사상을 완전히 확대시켜서 기로 만든 게 전봉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그 정신이 일제강점기 때 광주학생운동으로, 1980년대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온 것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이면서도 사상적인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의 기(氣),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이죠.

**문병학** 수천 년 동양의 사상사적 맥락을 단숨에 오르내리면서 경주최씨 시조인 신라말기 최치원부터 조선 후기 경주최씨 수운 최제우의 동학사상까지 도저하게 내려온 사상적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상사 등으로 대담이 넓어지면 짧은 시간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현재화를 위한 기념사업에만 얘기를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념하는 사업에서도 문화예술과 연계시킨 문화콘텐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정신계승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야기 구성’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창작된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갑오년의 역



사를 주제로 다룬 문학작품 창작과 발표가 소강상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발표된 장편소설이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듯 각각 한 편씩이 있습니다. 남한에는 송기숙 『녹두장군』, 북한에는 박태원 『갑오농민전쟁』이 그것인데, 이 작품들에 대해 얘기해주시지요.

**고 은** 송기숙 작가는 내 친구입니다. 열심히 살아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송기숙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장례를 치를 때 나는 장례를 다 마칠 때까지 그의 빈

소를 지킬 생각입니다. 송기숙 작가와 나는 각별한 친구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주 불효자입니다. 내가 시베리아 히말라야에 가서 40일을 지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송기숙 작가가 내 어머니의 장례의 마지막 날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인지 친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송기숙입니다. 내가 광주(光州)에 내려갈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대체로 송기숙이 그 친구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와 술 먹고, 그 친구의 중언부언(重言復言)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치매에 걸린 지 꽤 되었지요. 그래서 요즘 나는 참 불행합니다. 송기숙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지난 번에 작가회의 원로 몇 사람이 송기숙을 만나러 광주에 한번 내려가자고 해서 사전에 그 친구 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우리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부인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부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못 내려갔어요.

문 시인이 4만세기, 25년 가까이 동학에 미쳐 있는 것처럼, 송기숙이 1980년대 동학농민혁명에 미쳐서, 전봉준에게 완전히 미쳐서, 전국 각지 유적지를 찾아다녔어요. 수상한 사람으로 간첩이 아니냐는 신고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장편소설 『녹두장군』을 썼어요. 그 작품으로 나중에 만해문학상도 탔습니다. 그 무렵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쪽



에는 『녹두장군』이 있고, 북쪽에는 『갑오농민전쟁』이 있는데, 양쪽에서 동학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게 재밌는 대조라고 하겠습니다. 남북이 문학을 통해서 동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문병학** 송기숙의 『녹두장군』 제1권 첫 장부터 30여 페이지 분량이 고창군에 있는 선운사 마애석불에서 벌어진 비기탈취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숙 선생님은 1990년대 내내 전주 소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송기숙 선생님을 자주 뵈었는데, 2000년대로 넘어온 후 치매가 심해져서... 어쨌거나 2015년에는 장편소설 『녹두장군』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드높였다는 공로로 전북 정읍시에서 주최하는 [제5회 동학농민혁명대상]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송기숙 선생님은 시상식에 못 나오시고 대신 사모님이 받으셨지요.

선생님, 제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국문단에 창작·발표된 문학작품을 조사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1895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문단에 창작·발표된 작품은 약 300여 편인데, 소설 작품이 단편과 장편 포함 20편 정도이고, 시작품이 280여 편입니다. 이 작품들은 대체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집중적으로 창작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작품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콘텐츠가 중요해졌는데 도리어 작품창작 열기가 시들어서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고 은** 전북에 있는 안도현 시인 등단작이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지요. 그때 이후로 나에게는 묘하게 안도현과 전봉준이 동의어로 엮어져 있습니다. 1970년대 어떤 화가가 흑백 유화로 전봉준이 잡혀갈 때 찍은 사진을 초상화로 그려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전봉준 같은 투지를 나에게 인식시키고 화가가 선물을 한 거겠죠. 서재에 붙여놓았기 때문에 후배 시인들이나 동료들이 우리 집에 오면 한참씩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1980년대 그때는 내가 수색과 압수를 많이 당하던 때였는데, 그 과정에서 초상화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한 때 전봉준 초상화를 걸어두고 몇 년 동안을 낮이나 밤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 사진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병학** 전봉준 장군은 순창에서 체포되어 순창감옥에 갇혔다가 나주로 이송되었고, 이후 일본군에게 넘겨져서 서울로 압송되었지요. 당시 일본 영사관 순사청이 서울 남산자락 진고개, 지금 서울 중부경찰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재판정으로 심문받으러 오가는 과정에서 일본 신문기자가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남은, 들것에 들린 형형한 눈빛의 전봉준 장군 사진이지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본 영사관 측에서 제 편으로 끌어들여려고 전봉준 장군을 끊임없이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봉준 장군은 “나의 천명(天命)은 여기까지다. 너는 나의 적이고, 나는 너의 적이다. 하니 다른 말은 묻지 마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후 교수대에 올라



“어찌 나를 역적이라 이르느냐. 나를 죽이려거든 내 목을 쳐서 종로 네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 주는 게 마땅하거든 어찌 컴컴한 적굴에서 암연히 죽이는가.”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분의 당당함이 있었기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조선말과 우리나라 근대 초입(初入口)이 그나마 덜 적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 은** 그렇습니다. 전봉준이 있어서 절벽 같았던 근대가 그래도 빛나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근대 사상으로 동학(東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긍지입니다. 체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농민의 불만이 터진 것이지만, 동학농민혁명은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상을 실천한 것으로 세계사적인 가치실현의 운동이었습니다. 청나라 태평천국운동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태평천국사상은 교조적이고, 사이비성이 다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동학은 그것과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학과 농민전쟁, 농민혁명은 귀중한 우리의 역사적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계승해서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재로 만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동학과 농민혁명은 기념의 대상을 넘는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전봉준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동학정신의 새로운 발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병학** 네, ‘역사로부터 돌아오라’는 선생님의 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선생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 은** 나는 동학농민혁명 역사 바로세우는 일, 반란사건으로 치부된 채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진 역사를 복권시키는 일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못했고, 그저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니 미안할 뿐입니다.

**문병학**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국 현대사를 건너오셨다는 사실을 동시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앞에 앉아 있는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 집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대담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고 은** 동학농민혁명은 기념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에서 실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새삼스레 확인해야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어제의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일이라는 것, “지금, 여기”를 떠나서 동학농민혁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동학사상은 그것이 아무리 뜻이 깊고 높아도 헛것입니다. 동학을 사상으로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갑오년에 동학을 역동적인 실천, 불꽃으로 기화(氣化)한 전봉준의 정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동학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임원님과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임원님들의 노고가 우리나라 현대사를 한 단계 높이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기 제1차 이사회



지난 12월 9일(금) 201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규정 개정, 이사 추가선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기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에서는 심의의결 안건처리 외에 특별법 개정,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 등이 보고되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기 제2차 운영위원회



지난 12월 8일(목) 동학농민혁명교육관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기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려 기념재단 제1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승우 이사장을 비롯하여 고시형, 김정호, 문영식, 신함식, 이원하, 진윤식, 최금주, 최효섭 등 위원 9명이 참석하였다.



### 2016년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지난 10월 6일(목)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새롭게 번역된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중앙총부가 공동주최로 지난 10월 11일(화)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생기 정읍시장, 이이화 前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내외귀빈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역사토크 콘서트 개최



11월 19일(토) 동학농민혁명교육관 대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역사토크 콘서트는 문화콘텐츠 활용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신앙 대중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정읍시장 및 정읍시의회의장 등 내외귀빈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문화예술가, 문화콘텐츠 전공연구자의 토론과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한 문화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 제5차 장군천안전공지묘발굴추진위원회 및 발굴결과 설명회



지난 11월 8일(화)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제5차 장군천안전공지묘 발굴추진위원회 및 발굴결과 설명회가 열렸다. 발굴을 맡았던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발굴과정에서 조선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곽묘가 발견되어 전봉준장군의 묘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발굴추진위원회는 발굴사업을 종료하고 추진위원회 활동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5차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지난 12월 9일(금) 제5차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세계기록유산등재를 위한 전략과 주요 기록물 선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성철의 손자 최정길

**Q**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때에 수고 많으셨지요? 덕분에 전국 각지의 참여자 유족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행사가 성황이었습니다. 현재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시죠? 먼저 [녹두꽃] 독자들에게 간략하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수석부회장 최정길입니다. 부회장으로서 우리의 현안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기념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참여자 조사·발굴사업 및 추가 유족등록 신청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평생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국방임무 수행을 위해 몸담아 온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

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큰 벽에 부딪히고 보니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 여러분들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Q** 조부이신 최 성자 칠자 참여자께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남 화순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요?

**A** 제가 군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난 후, 2006년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작은집 형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MBC뉴스를 봤느냐고 물으셨어요. 보지 못했다고 무슨 내용이냐고 되물으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군으로 활동을 하신 게 틀림없다고 말을 해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특별법이 제정된 지 몇 년 지난 뒤니까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쯤 전에 알게 된 것이지요.

**Q** 그 이외에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부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들은 얘기는 없으신지요?

**A** 할아버지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는데, 그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2006년도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왜 후손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행사 및 학술대회에 참여하며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워낙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쉬쉬하던 시절이었으니까 행여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참여 사실을 알게 된 후 화순의 동학농민혁명의 거과 최 성자 칠자를 찾아보니 갑자기 12월 초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 출신으로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12월 초에 동학농민군 220명이 일군본과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하던 중 157명은 포살되었고, 63명만이 겨우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 때 살아난 사람들 중에 우리 조부님도 계셨는데, 불과 며칠 후인 12월 7일 일본군에게 붙잡혀 12월 12일 전후 처형되었다는 기록을 서울대 규장각 문서고 사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화순의 오성산이 보이는데, 작은형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보이는 오성산에서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전투에 참가하셨다가 체포되어 장렬하게 순직하셨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조부님은 현재 화순 선산에 모셔져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장렬하게 순직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작두, 왜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마을에서 풀을 베다가 자를 때 쓰는 그 무지막지한 장비 작두 말이에요. 그 작두로 조부님 몸을 일곱 토막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작두로 일곱 토막을 낸 뒤 마대에 담아 내버리고 간 것을 주민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줘서 옮겨 모셨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아주 치가 떨립니다. 일본 놈들이 천인공로할 만행을 자행한 거죠.

갑오년 12월 초 최경선 장군이 인솔해 움직였던 동학농민군은 220명쯤 되었는데, 전투에서 일



본군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하다가 마을로 은신을 했는데, 마을 이장 오씨가 밀고를 해서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체포된 지 5일 만에 작두로 잔인하게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Q**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혹시나 조부께서 남긴 서책이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등이 전해져오는 것은 없지요?

**A** 제가 세살 때 저희 가족은 화순에서 나와 광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홍수가 나서 생가가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생가가 있었다면 서책이나 관련된 유품 등이 얼마만이라도 남아 있어서 제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집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관련 유물이나 조부님의 유품 등이 아무 것도 전해져오지 않습니다.

**Q**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894년 동학농민군은 낮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에 맞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결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는 등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역사가 극심하게 축소·왜곡되면서 애국자가 매국노로, 매국노가 애국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원이자 애국애족 정신의 표상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반란군’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침이 심했던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참여자 후손들은 반란군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쓴 채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는데,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요?

**A** 글썄요. 집안 어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은 직접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이 드러날까 무서워 쉬쉬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어찌 우리 집안이라고 피해가 없겠습니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에도 국가관이 투철하셨고, 성품이 아주 곧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민중의 고난을 고민하셨던 분으로 1894년 3월 25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고 그 길로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여 할아버지 제사를 3월 25일에 모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1894년 12월 초 화순 오성산전투 이후 체포되어 작두형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알게 된 것이지요. 증조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태몽 꿈을 꾸셨을 때, 북두칠성을 보시어 할아버지 존함을 별성(星), 일곱 칠(七)자로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할아버지 기를 받아 형님께서 경찰서장을 하시고, 저 또한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작은집 조카는 현재 공군장군 소장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집안 선조들의 활동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본관은 황해도 해주 최가이고, 고려전기에 활동하신 최충 정치인의 아버지가 저희 시조입니다. 최충(984~1068) 할아버지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문화시중, 현재 직급으로는 국무총리를 43세에 역임하시고 72세 벼슬에서 물러나실 때까지 관직생활하시면서 84세에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최충 정치인

후손으로 최경회 장군(1532~1593)이 계십니다. 최경회 장군은 조선중기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셨고, 진주성을 지키다 전사하셨습니다. 선조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저희 집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내내 반란사건으로 치부된 채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천만 다행으로 1986년 서울에서 [역사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소장학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는 기념사업단체들이 창립되어 1백주년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학계 연구자들과 기념사업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참여자 유족을 찾아 나섰고, 1993년에는 드디어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이던 1994년 봄에 서울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유족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전국의 기념사업단체들과 유족회 회원 분들이 결합되어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 결실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로 110년 만에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 명실상부하게 그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참여자 유족 등록을 거친 후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감회가 후손으로서 남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참 오랜 세월 동학농민군은 반란군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없애고 탐관오리를 제거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고 청일전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반외세를 외치며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로운 혁명인데 오랜 시간 반란군으로 매도되어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방금 질문을 듣고 보니 유족의 한사람으로 참 부끄러워요. 제가 2010년도부터 유족회에 5년 이상 몸담아 왔는데 총무부터 시작해서 국장, 총장, 지금은 수석부회장으로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4년 9월 17일에 설치되었다가 2009년 12월 31일부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현행 특별법 시행으로 등록을 마친 참여자는 498명이고, 후손이 나타나지 않은 참여자 3,162명입니다. 총 3,660명이 확인되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30여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으로 확인되어 등록된 사람의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유족등록 권한이 현재 특수법인 기념재단으로 승계가 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법 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하거나 정비하여 참여자 발굴사업 및 유족 등록 신청을 추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족 등록이 다 되어서 20-30만 명 정도가 되면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1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정부에서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습니다. 유족 등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많은 참여자 후손들이 확인되어 유족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 유족 등록이 서둘러서 재개되었으면 합니다.

**Q**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느라 동분서주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계신지요. 또 개인적으로나 전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차원에서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먼저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념일 문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루속히 행정안전부로 발송해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며, 아울러 기념공원예산 배정, 참여자 및 유족 추가등록 신청에 있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념재단이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을 정부에서 지정한 추모공원으로 모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Q** 이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창립된 기념사업 단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왜곡·축소된 혁명의 역사적 복원을 위해 대중적인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실로 특별법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군이 내세웠던 만민평등과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의 현재화를 위해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기치로 정신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수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입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유족의 현안문제인 기념일 제정, 기념공원조성 사업, 참여자 발굴사업 및 추가 유족등록 뭐하나 제대로 진행한 것이 없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4항 2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과 4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기념재단은 유족 때문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기념일 제정, 기념공원 조성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발굴사업 및 유족 등록신청은 유족의 염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념재단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이자 구국애민 정신의 표상입니다. 이처럼 뜻 깊은 갑오년의 역사를 이루어낸 참여자와 그 후손, 그리고 반란사건으로 치부된 암울한 역사를 떨쳐내고 혁명으로 복권



시켜내고자 20여 년 가까이 각 지역에서 지원금 한 푼 없이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기념사업단체 임원과 회원님들의 바람에 부응하여 나름대로 기념재단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들이 잘 맞아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업예산을 제때 적실하게 확보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재단은 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족 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상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념재단은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으로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확산해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 격려와 자문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다소 불편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기념재단이 왜 설립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도 연령이 높아 몸이 불편하신 유족 분들, 또 세상을 떠나신 유족 분들께 현안문제를 해결해드리지 못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유족회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법에 정해진 정신선양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신 선양사업을 위해 애쓰는 기념재단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충청북도 보은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 보은취회 (報恩聚會) 터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32-1번지 일대 |

이곳은 1893년 3월 11일부터 4월 2일까지 보은취회가 열렸던 장소이다. 동학교단의 지휘 아래 열린 이 취회는 민회(民會) 형태의 대중적인 정치 집회로 전국에서 수만 명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한 달 가까이 전개된 집회에 참가한 동학교도들을 통제하기 위해 교단은 집회 장소 근처에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하기도 했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곳 주변에 반 장 높이의 사방 1백여 보에 이르는 돌성(石城) 쌓아 훈련도 했다. 또한,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 때 많은 농민군들이 집결한 장소이기도 하다. 1894년 9월 18일 최시형은 총동원령을 내린 후 각 접주들에게 군중을 인솔하고 대도소가 있는 장내리로 집결하라고 지시했고, 이곳에 모여든 수만 명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초막(草幕) 4백여 채를 짓기도 했다.





## 충청북도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_

### ▣ 보은취회(報恩聚會) - ①

19세기 조선은 내부적으로 소수 문벌에게 중앙권력이 독점된 세도정치라는 비정상적인 체제 아래에서 매관매직, 조세수취제도 문란 등으로 조선왕조의 통치 질서가 무너져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외부적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서구 제국주의가 출현하여 원자재와 상품판매시장 확보 및 자본투자 대상지를 찾아 세계 각국을 침략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넓은 대지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중국과 인도에 대한 침략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격동 속에서 동아시아 대륙의 연안이자 태평양의 허브인 조선과 일본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였고, 일본은 세계사적 조류에 편승하여 서둘러 산업화의 길로 진입, 제국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급변하는 세계 정치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1876년 일본에 의해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개항하였고, 연달아 1880년대 미국, 영국 등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로써 안으로 탐학한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조선의 농민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까지 가중되어 그 삶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 1860년 경북 경주에서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여 평등사상이 주창되었다. 이에 놀란 조선정부는 수운 최제우를 붙잡아 좌도난정(左道亂政)의 죄목으로 참수(斬首)하였다. 그러나 동학은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880년대 중반 전국으로 확산된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동학교단 본부인 도소(都所)를 설치하였다. 도소가 설치된 곳이 바로 소백산맥자락 속리산 입구인 충북 보은군 장내리(帳內理)이다.

## 충청북도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_

### ▣ 보은취회(報恩聚會) - ②

세력이 크게 확장된 동학교단은 충청도 공주(1992. 10)와 전라도 삼례(1892. 11)에서 교조신원운동에 나섰고, 1893년 2월에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 '복합상소'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동학교단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마침내 1893년 3월 보은군 장내리에서 대중적인 정치 집회인 보은취회를 개최하였다.

보은취회 시기 전라도 금구·원평에서도 김덕명, 손화중, 김개남, 전봉준 등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정치집회가 열렸다. 보은취회와 금구·원평취회 때는 이전의 교조신원운동 때와 달리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기치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는 광화문복합상소(1993. 2) 전후시기 서울에 소재한 외국 공사관 벽면 등에 척왜양(斥倭洋)을 주장하는 글이 게시된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1893년 3월 1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의 동학교도 수만 명이 집결한 보은취회는 조선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민의를 전달하는 시위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이전시기 민중항쟁이 병란(兵亂)이나 민란(民亂)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민회(民會)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1894년 촉발된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史)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김소촌가 (金昭村家)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123-6 |

1894년 12월 17일 북실전투 직전에 북접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다가 관군의 기습을 받았던 곳이다. 최시형과 북접지도부가 김소촌가에 머문 사실과 일본군과 민보군이 이곳을 기습한 사실을 「소모사실」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소촌가의 소촌(所村)은 사람 이름이나 명(名) 혹은 호(號)가 아니라 소촌찰방(小村察訪)을 지낸 김세희(金世熙)의 집을 뜻한다. 김세희는 당대에 부를 이루어낸 입지전지적인 인물로, 닭과 같은 집짐승이 유달리 잘 자라 밀천을 얻은 후, 재산을 크게 증식시켜 북실 일대에서 가장 큰 집을 지었다. 그의 집은 당시 고루거각(高樓巨閣)이라 표현될 정도로 잘 지어진 집이고, 김세희는 300백석지기, 혹은 천석지기로 불릴 만큼 부유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다.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 16번지 일대 |

기념공원은 보은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선양하고자 200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에 완공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적지는 아니지만 북실전투지와 누청리 김소촌가(家)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위치상의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곳이 기념공원 조성지로 선택되었다고 한다. 총 98,000여㎡ 부지에 사업비 6,960백만원(국비18억, 도비 5억4천, 군비 32억2천, 기타 14억)이 투입된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기념동상, 인내천정(人乃天亭), 충의정(忠義亭), 민중광장, 죽림광장, 동학동산, 하늘길 등으로 내실 있게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현재 보은군은 동학농민군들이 장안면 장내리 보은취회 이후 농민군이 북진했던 장내리 취회지↔선병국 가옥(장안면 장내리)↔운봉서각(장안면 장재리)↔김소촌가(보은읍 누청리)↔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보은읍 성족리)↔북실 전투지(보은읍 종곡리)를 잇는 총 45km 구간을 동학길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

▣ 보은 북실전투 - ③

공주 우금티전투에서 패배한 남·북접 연합농민군은 후퇴하던 중 벌어진 원평 구미란전투(11. 25)와 태인 전투(11. 27)에서 또다시 패배하여 주력군을 해산하였다. 이후 남접농민군은 정읍, 광주, 나주를 거쳐 서남해안 바닷가 장흥과 진도로 밀려났고, 북접농민군은 손병희의 인솔 하에 태인에서 내장산 갈재, 순창 북흥을 거쳐 임실로 향하였다. 임실 청운면에서 최시형과 합류한 후 장수, 무주, 영동, 황간, 용산, 청산을 거쳐 12월 16일 보은에 이르러 관아를 점령하였다. 이때 농민군 행렬이 30리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였다. 이튿날인 12월 17일 북실마을(종곡리, 鍾谷里)로 들어간 동학농민군은 그날 밤부터 18일까지 일본군, 관군, 민보군 등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

북실전투 때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핵심 병력은 총 279명으로, 일본군 43명, 상주소모영의 유격대장 김석중이 이끄는 민보군 200명, 용궁현의 포수 20명, 함창 포수 19명 등이었다. 일본군과 상주 유격병대가 보은의 농민군에 대해 공격을 개시한 것은 12월 17일(양력 1895.1.12) 밤이었다. 일본군과 민보군 등은 먼저 최시형 등 지도부가 모여 있던 누청리 김소촌가를 공격한 후 곧바로 보은 북실마을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북실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이 수천 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들에는 300여명, 2,400여명,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등으로 다르게 전하고 있다. 일본군은 국제법상의 문제 등을 염두에 두었는지 300여 명이라고 턱없이 적은 수를 기록했고, 상주 소모사 정의묵(鄭宜默)은 총에 맞아 죽은 자가 395명이며, 골짜기와 숲속에 널린 농민군 시체가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했다. 김석중은 총으로 죽인 자가 2천여 명, 야간전투에서 죽인 자가 39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북실 전투지

##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산 14~17 일대 |

동학농민혁명 당시 공주에서 후퇴했던 북접농민군이 다시 북상하여 일본군 및 관군·민보군 등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곳이다. 1993년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에서 북실전투 관련 유적과 농민군 집단매장지 등을 확인하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보은 종곡 동학유적-북실전투 및 관련유적과 집단매장지 조사』, 1993.)



### 보은관아 통고 [報恩官衙 通告]

1893년(癸卯) 3월 11일 동학인이 삼문 밖에 방문을 세움.

지금 왜(倭)와 서양이라는 적이 마음속에 들어와 큰 혼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나라의 도읍지를 살펴보면 마침내 오랑캐들의 소굴이 되어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진왜란의 원수와 병인양요의 수치를 어찌 차마 말할 수가 있으며, 어찌 차마 잊을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동방 삼천리강토는 모두 짐승의 자취로 가득하고, 5백년 종묘사직은 장차 기장발사직(黍稷) 또는 서리지탄(黍離之歎)이 될 것이니, 인(仁)·의(義)·예(禮)·지(智)와 효(孝)·제(悌)·충(忠)·신(信)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하물며 왜적은 도리어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재앙이 될 빌미를 숨겼다가 그 독기를 뿜어내고 있어, 위급함이 아침저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생각하여 편안하다고 말하니, 지금의 형세는 어찌 불이 붙은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보은관아통고 부분)

『취어(聚語)』,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3권),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뒤 벽면

**천지인(天地人)은 하나,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곳 보은은 세월 회시령이 조선정부의 탄압을 피해 몸을 숨긴 채 동학(東學)을 전파했던 중추원 근거지로 1893년 3월 전국에서 온 수만 명의 동학교도들이 혁명양심의(革命良心的) 기치를 들고 반역세 반봉건 정치정화인 보은회회(保恩回回)를 열었던 곳이며, 북접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황천인 북실전투 때 수많은 농민군이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학살당한 동안의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경제 변화와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신분제를 비롯한 사회체제가 심하게 흔들렸다. 특히 19세기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밀려난 원 씨구 계급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국권(國權)이 위기에 처했고, 세도정치(世道政治)의 무능과 부패로 국가체도가 문란해지고 탐관오리들의 억압과 착취가 극에 달해 백성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에, 참다 참다 못해 일어난 농민들의 항거가 전국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나라 안팎의 위기가 날로 높아가던 1864년, 경상도 경주에서 수운 최해우는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과 함께 마음속에 신명란 하늘을 오신 존재인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통찰을 갖게 되었다. 보은인민(保恩人民) 계몽구민(啓蒙救民) 혁명적(革命的) 기치를 내세운 동학은 신분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근대적 인권을 주장하며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나 조선정부의 시를 철폐(時廢)의 금지라고 탄압했다. 급기야 최해우는 1864년 대구에서 처형되고, 회시령에 의해 동학은 이곳 보은에서 다시 꽃피었다.

**보은 군수에게 고향**

무릇 사람 노릇하기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첫 번째가 공은 원하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신라 노릇하기요, 두 번째가 죽는 날까지 온 마음 온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자서 노릇하기요, 세 번째가 정조를 지키며 사는 지성이 노릇하기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며 유사( 유사)하고 무사(無事)할 또한 못없다. 무사하고 안락할 때 태어났거나 힘들고 어지러운 때에 태어났거나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다.

오늘날 왜적(倭賊)과 양학(洋學)이 나라 한가운데 들어와 혼란이 극심하다. 지금 처세는 온통 오랑캐들의 소굴이 되었다. 임진년(1592) E(1866) K(1866)의 재후의 지후이 되었다. 그 때를 어찌 차마 잊을 수 있었는가. 지금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삼천리강산이 흉악무도한 침수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하다. 우리 수만 명의 죽기를 명해하고 희생을 함쳐 최 왜적(倭賊)과 양학을 물리쳐 나라를 지켜내고자 한다. 바라건대 보은 군수도 충의(忠義)로운 선비들을 모아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함께 모국(母國)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개사년(1893) 3월 18일  
동학 창시(東學創始)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뒤 벽면(保恩東學農民革命紀念塔後壁面) 일부

**커마다 하늘님 되는 세상을 향하여**

늘으신 부모님을 닦고두고 짐을 떠나는 지 어드님 두 달이 지났다. 형산에서 기포령(箕浦嶺)이 내리 날 짐 떠나기를 말했어던 나내에 태호의 말승사(太湖의 馬承師)의 승선이 지금도 귤현에 정경하다.

"나라가 무너지고서서 어찌 부모형제가 없었나. 어찌 친어머니 짐을 나사라. 네 아수도 데어가라. 가자, 저 무도한 왜놈들과 서양 요망쟁이들, 처술의 권력(權利)들을 물리쳐서 이 나라를 반역(反逆)하여 커마다 하늘님이 되는 세상을 열거라."

순병의 통명 지휘 아래 눈산으로 내오는 우리는 현봉준 장군 부대와 연합하여 공주로 진격했다. 노을을 지날 때 진눈깨비와 함께 목현의 동학농민군 일곱 명이 최창환 장군을 연합부대를 찾아왔다. 처술로 가는 길목을 현향하고자 가파른 산등짐(山等冑)에 군말(軍馬)과 무기를 옮겨두었던 죽은 채임산 근거지가 관군의 기습을 받아 무너졌다고 한다.

이인과 승지, 료포전투를 시작으로 우리들은 수급치 농현을 오르내리며 관군-일본군과 만났으며 혈전을 벌였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쏟아지는 왜놈들의 포탄과 총탄에 머리부터 뒤통리고 가슴까지 찢기고 팔뚝이 떨어져나간 동학농민군의 죽음이 끝까지 끝까지 끊어졌다. 찢어진 깃발 나무기는 거둔나무까지 사사도 개질스럽게 날아드는 술한 까마귀 까마귀 때, 까마귀 때를 뒤로 한 채 우리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후퇴를 거듭했다.

갑오년(1894) 11월 무명 동학농민군

**무너진 하늘, 이 길은 역사의 거울을 넘어**

적 달 만에 다시 밟은 보은 땅. 밀려 내려앉은 하늘에서 폭풍이 쏟아져 내리며 후퇴를 거듭하던 우리들은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천리마 태신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또 다시 패배하여 현봉준 장군과 순병의 동학부대를 해산했다. 버리고 잊겨버린 산가죽에 울림을 짓밟아 버린 채 태신에서 철수(退却)로, 입당(入堂)으로, 순창(順昌) 장수 무우 한길 영토를 거쳐 수많은 전투를 치루면서 숭산 현산을 지나 보은에 들어왔다.

돌아온 보은에는 관군들이 부하(部下)인 강안(强安)을 패배의 초막(草幕)들과 살갓을 찢는 매복(埋伏)을 추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운을 무우고 보은 관아를 점령한 우리 부대는 일본군과 민보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허우명을 받고 북실(北室)으로 이동했다. 날이 저물고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서 모닥불을 지피고 얼어붙은 몸을 움츠러들고 있던 채 손기를 아렸다. 끝없이 쏟아지는 폭설과 날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흰 어둠은 큰 마음을 위었다.

12월 18일 폭두새끼, 마을을 둘러싼 산자락에서 적들의 총구가 불을 쬐기 시작했다. 최후의 결전(決戰) 끝까지 버티며 까마귀에 눈앞 땀이 심장 파헤쳐진 채 나뭇잎이 떨어져서, 사, 수많은 농민군들이, 수피(水皮) 피와 살과 뼈가 흩어진 이 산(山)에 고이 강들. 그대들을 따라 쫓아다니는 눈보라 불고 왜놈들의 총구로 헤치고 이 길은 역사의 거울을 넘어가라. 기원(祈禱) 눈부신 불을 맞으라니, 전달(傳達)되어 조선(朝鮮) 삼하(三下) 금이구(金衣) 꽃불(꽃불) 밝히라.

갑오년(1894) 12월 무명 동학농민군

### 참고자료

배항섭, 『동학농민전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신영우, 『1893년 보은 장내리의 동학집회와 그 성격』, 『충북학』제5집, 충북학연구소, 2003.  
 『취어(聚語)』,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토비대략(討匪大略)』, 『소모일기(召募日記)』,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3』,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소모사실(召募事實)』,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9』,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1.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충청북도, 2007.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사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기념관 방문단체



기념관 방문단체

1-1	1-2
2-1	2-2

- ① 9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 안석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라북도와의 인권 관련 업무협약체결을 마친 후 기념관을 방문한 이성호 위원장은 동학의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간존중은 한국 근대 인권의 시원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인권재단은 [인권과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의 교류에 힘써나간다고 했다.
- ② 9월 29일,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8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한 후 기념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돌아보았다.

3-1	3-2
4-1	4-2

- ③ 10월 20일, 일본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前나라예대) 교수 답사팀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남 진도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기조강연 후 무장기포지, 무명농민군위령탑, 동학혁명모의탑, 갑오동학혁명기념탑 등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④ 11월 8일,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검 장호중 지검장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기념관 방문단체



5	6
7	8

- ⑤ 9월 21일,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학생 11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⑥ 10월 4일, 이리서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8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⑦ 10월 5일, 태안중학교 1학년 학생 41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깃발 만들기', '녹두 씨앗심기'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 ⑧ 10월 5일, 수곡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3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9	10
11	12

- ⑨ 10월 5일, 부안 백산중학교 학생 및 교사 41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정읍지역과 부안지역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⑩ 10월 6일, 신태인 왕신여중 1학년 학생 14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깃발만들기', '녹두 씨앗심기'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 ⑪ 10월 6일, 청운중학교 학생 및 교사 97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⑫ 10월 7일, 이리북일초등학교 5학년 학생 42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깃발 만들기', '녹두 씨앗심기'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기념관 방문단체



13	14
15	16

- ⑬ 10월 8일, 증평 형석중학교 학생 및 교사 39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정읍지역과 부안지역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⑭ 10월 11일, 연지유치원 어린이 4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 내 어린이 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캐릭터 가방 만들기'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 ⑮ 10월 12일, 서울영락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96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⑯ 10월 12일, 중앙유치원 어린이 56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 내 어린이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캐릭터 가방 만들기'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17	18
19	20

- ⑰ 10월 13일, 전주 대성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43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정읍지역, 부안지역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⑱ 10월 13일, 광주계림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99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⑲ 10월 14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돌아본 후 정읍-부안 일원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⑳ 10월 22일, 변산서중학교 학생 및 교사 3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돌아본 후 정읍지역, 부안지역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기념관 방문단체



#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찾아서

**일시** 2016년 11월 3일  
**장소**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무실  
**대담** 박달한 |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회장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문병학** 회장님 반갑습니다. [녹두꽃] 2016년 겨울호 지역대담을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달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에 살면서 지역문화 활동에 뜻을 두고 1993년부터 풍물이나 택견 등 전통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하면서 우리 보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박달한이라고 합니다. 2001년 우리 보은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창립하였고, 지금은 제가 계승사업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1	22
23	24

- ① 10월 26일, 정읍유치원 어린이 33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 내 어린이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캐릭터 가방 만들기'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 ② 11월 1일, 진안 장승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3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정읍지역, 태안지역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③ 11월 8일, 정읍·고창 유·초등교(원)장 협의회 6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전시실을 관람한 후 기념교육관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의 동학농민혁명 특강을 경청하였다.
- ④ 11월 15일, 정읍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 28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 내 어린이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캐릭터 가방 만들기'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교육문화단체인 「삶결두레 아사달」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심화시키고 2000년 들어서 성인문해교육과 방과후학교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여기에 더하여 2006년부터는 다문화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충청북도, 그 중에서도 보은지역은 동학농민혁명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요? 계사년(1893년) 3월에는 전국의 동학교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 보은집회(보은취회)를 열었던 곳이고, 1894년 12월 18일과 19일에는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전라도 원평·태인까지 후퇴했다가 복상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맞아 전투를 벌였던 북실전투지(보은군 종곡리)가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보은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히 오래 전에 기념사업단체를 창립하여 활동을 해오셨지요? 보은지역에서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게 된 배경과 이후 전개해온 기념사업 혹은 정신 선양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박달한** 1996년 설립된 교육문화단체인 「삶결두레 아사달」 구성원들은 1998년 국민의정부가 들어선 이후 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4331 솟대장승굿 -하늘이 열리고, 이땅에 지킴이가 서대라는 주제로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했습니다. 단기 4331년이라는 연호를 행사명에 넣은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리 지역에서는 서구로부터 강제된 '근대'라는 정체불명의 문화가 파괴해버린 단군 이래 오천년 이상을 이어온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살려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의 생각이 이러하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전국 각 지역에서 반봉건, 반외세 기치를 들고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를 혁파하여 만민평등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반봉건 항쟁이자, 함포로 위협하면서 밀고 들어온 정체불명의 서구 근대에 대항한 반외세 민족항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999년부터 「삶결두레 아사달」 구성원들은 보은지역에 숨쉬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가는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4332보은동학굿<북실진달래- 동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행사였습니다. 2000년'4333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동학농민혁명만세>'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조직을 확대하여 2001년 4월 7일 보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활동이 저하되기도 했지만 2002년에는 보은군과 한국문예진흥원에서 나오는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받아 '보은동학굿'이라는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여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보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삶결두레 아사달은 보은동학굿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판이 잘 벌어질 때도 있었고 근근히 명맥만 유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길위 김창환집주님이 일찍부터

2013년 보은취회 120돌을 준비하자고 하여 2012년에는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19돌, 보은취회 120돌을 맞아서는 이전에 추진해온 기념사업과는 달리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판을 벌이게 되었고 전국적인 추진접주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보은취회 121돌·동학농민혁명120돌 때는 채희완선생님을 비롯한 전국 문화패들이 합류하여 '동학농민혁명120년 역사맛이 보은생명평화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2016년에는 보은취회가 지역주민과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학생들과 접주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살아있는 축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문병학**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창립 무렵 보은지역의 사회적인 상황과 동학농민혁명에 보은지역 주민들의 역사인식은 대체로 어떠한지요?

**박달한** 당시 보은지역에서 활동하는 진보적인 단체로는 농민회와 전교조가 있었습니다.보은농민회는 1980년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조직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그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교조 또한 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미미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보은지역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요. 근데, 우리 보은지역은 보수적 향토정서가 강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보은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일도 급격하게 그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 무렵을 생각하면 지금도 암담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문병학** 박회장님 그때가 언제였지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은취회가 열렸던 장내리 들판에 동학농민군을 기리는 장승을 세울 때 그 행사에 참가했었는데... 그때가 몇 년이었지요? 제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보은지역 뜻 있는 분들, 예컨대 한국민족문학작가회의 보은지회 지회장님 등이 그 행사에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승을 세우면서 고천문을 읽고 막걸리를 올리는 등등 제례를 올릴 때 기억이 선명하데 언제인지 감감해요. 그 무렵의 기억을 좀 떠올려주시죠.

**박달한** 동학농민혁명 보은집회 터에 장승을 세웠는데 그해가 2000년도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가장 열정도 넘치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였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에 걸림이 없이 생각한대로 밀어붙이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지요.

보은취회 터인 장안(보은군 장내리) 들녘에 세웠던 그 장승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때 장승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여기저기 장승재목을 구하러 다녔어요. 장승을 깎을 목재를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1999년 행사 맨 급히 구한다고 구한 장승목재가 수입목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얼을 담아 세울 장승을 수입목으로 깎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조선소나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는 농민회 선배가 전화를 걸어와



“행사 준비하느라 바쁘지? 틈내서 술 한 잔 하러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바쁘는데.. 그러면서 선배님이 오라니 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소주나 한 잔 하자 싶어서 나갔어요. 그날 그 술자리에서 제가 장승목이 수입목이라 걱정이라고 했더니 그 선배가 대뜸 저쪽 자기가 아는 어느 무덤 앞에 장승을 깎고도 남을 만큼 큰 조선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조선소나무로 대체하여 보은취회 터에 장승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농민군이 내가 장승을 세우려는 일을 돕는가보구나... 기분 좋았죠.(웃음)

그렇게 해서 조선소나무로 장승을 깎아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허허벌판 논둑길에 세웠어요.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휴... 그날 행사 생각나지요? 와~ 종이술잔이 바람에 날아가 뒤집히고... 대단했었잖아요.

그때 장승을 조각한 사람이 김준곤씨였는데, 제가 북실(보은군 종곡리)에 세울 동상은 피와 한이 서린 곳이니 장승도 숙연한 느낌이 들게 조각하고, 보은취회 터에 세울 장승은 우렁찬 민중의 합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표정을 그렇게 조각해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김준곤씨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신명을 다해서 그 장승을 조각했지요.

**문병학** 명(命)이 다한 그 장승 한 쌍을 제123주년 보은집회 기념행사 때 장례를 치르는 일종의 화장을 한 ‘장승다비식’을 가졌었지요? 장승다비식은 풍파로 인해 헤진 장승을 화장시키는 일종의 장례식을 거행한 것인데, 제 고향이 굉장한 시골이에요. 웃자고 하는 말로 “집 앞마당에서 산토끼가 발맞추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산골인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선암사 뒷산이에요. 산골마을이라 그런지 마을 앞에 거의 장승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어릴 적 우리 마을의 장승을 불태우는 ‘장승다비식’을 본적이 있어요. 40여 년이 넘는 기억인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장승다비식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봄 보은취회 기념행사 때 장승다비식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날 갑자기 잊고 있었던 40여 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급속도로 진전된 소위 근대화 과정에서 고유한 우리의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기념사업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왜곡되고 축소된 역사를 되살리는 일 못지않게 근대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귀중한 문화전통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박 회장님과 장승다비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장승다비식을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자로서 의도랄까? 편하게 생각을 말씀해주시지요.

**박달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0년 10월 29일 보은동학기념사업추진회와 문화마당 아사달, 보은민예총이 여러 벗들과 민중의 소박한 염원을 담아 “사람이 하늘이다, 동학농민혁명 만세”를 외치면서 세웠던 장승입니다. 이 장승 한 쌍은 지난 14년 동안 보은취회 터에서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그곳을 지켰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연하게 서 있던 장

승이 2년 전 모진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쓰러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승을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으로 옮겨 공원 한쪽 구석에다 눕혀놓았습니다. 이후 이곳을 다니면서 자꾸 그 장승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의 염원이 깃든 장승인데, 저렇게 구석에 처박아놓은 것은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다가 함부로 내다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보은취회를 기념하는 대중적인 행사 때 장례를 치러줘야겠다 생각했고, 그 생각을 올해 봄에 실행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되돌려드리려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병학** 수운 최제우 선생이 관군에게 체포되어 1864년 3월 10일 경상감영이 있던 대구 장대에서 순국하신 후 해월 최시형 선생께서 태백산으로 숨어들어 동학을 포교하였지요. 그러다가 삼남지방 등으로 동학교세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1880년대 중반 해월 선생께서 소백산맥 속리산자락인 이곳 보은 장내리에 도소를 설치하고 자리를 잡았지요? 이곳에서 육임제 등 동학교단 조직체계를 정립했는데, 여기에 대해 아는 대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한** 동학은 조선말 19세기 후반 외세의 침탈과 삼정(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의 문란, 탐관오리의 횡포 등으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고통에서 신음하던 때 1860년 4월 5일 수운 최제우 선생이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케 하다)의 도(道)로 창시(創始)한 것입니다.

보은은 1885년 5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이 보은 장내리에 은거하면서 동학포덕의 중심지가 되었고, 1887년 6월경에 육임소(六任所)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동학교단의 중앙본부 역할을 하게 된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또한, 1893년 3월 1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 동학교도와 민중 3만여 명이 장내리에 모여 취회를 열고 보국안민 척양척왜로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보은취회 때 수만 명이 모였지만 가래침조차도 함부로 뱉지 않고 대소변을 보면 반드시 땅에 묻어 머문 자리는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청결하였으며, 행동이 질서 정연하여 동학도의 행위가 올바르게 선무사 어윤중도 보은취회를 민회(民會)로 보고 조선조정에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은취회를 통해 이 땅의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자신감을 갖고 보국안민의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문병학** 동학농민군이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일본군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진 후 후퇴하면서 논산 황화대전투, 원평 구미란전투, 태인전투 등을 벌였으나 계속 패배하였습니다. 갑오년 11월 25일(음력) 원평 구미란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태인 쪽으로 후퇴하여 다시 27일 태인의 주산인 성황산, 한가산, 도리산 등 9개 산봉우리를 장악하고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를 맞아 싸웠으나 이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동학농민군은 주력부대를 해산, 이른바 남접 농민군은 광주, 화순, 능주, 나주 등을 거쳐 전남 장흥으로 내려갔고, 북접



농민군은 임실을 거쳐 무주, 황간, 영동, 청산 등을 거쳐 보은으로 올라왔지요. 그래서 12월 16일 보은관아를 점령하고, 그 이튿날인 17일에는 종곡리(북실마을)로 이동하여 밤부터 18일까지 일본군과 상주 소모영 부대 등과 대접전을 치렀습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이나 토비대략, 소모사실 등의 사료들을 통해 엄동설한에 북실마을 산자락이 온통 시산혈해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은계승사업회에서 한동안 겨울에 위령제를 모셨었지요? 몇 년도였던지? 그 위령제 때 추위에 아주 덜덜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례를 봄철 보은취회 행사로 통합시켰지요?

**박달한** 2000년대 초반기에 4년 정도 12월(음)에 위령제를 올렸었지요. 너무 추워서 그 제례를 멈추고, 대신 2007년부터 보은군에서 군비를 들여 건립한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안의 기념탑 앞에서 4월에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보은군에서 약 3천여 평의 부지에 주차장, 기념탑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시설물을 설치하여 완공했지요. 기념공원은 마지막 전투인 북실전투가 벌어진 종곡리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사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보은취회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갑오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12월 제례를 이 행사와 통합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박 회장님은 1990년대 초반기부터 20년이 넘도록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물론이고, 동학사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한** 어찌 보면 오래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얼마 안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피 흘림의 역사를 오늘 날 살아있는 곳관으로 승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밝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솟대로 삼을 수 있도록 갑오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기념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1894년의 사건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개혁사상은 단지 동학, 우리나라만의 사상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학을 통해 좀 더 원대한 꿈을 꿀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학**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전후한 시기에 기념사업의 방향과 목표는 반란사건으로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진 역사적 의미를 혁명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전국적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2004년 특별법 제정인데,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방향과 목표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시기에는 조선왕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세

계사적 차원의 동서냉전체제시기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기 위한 학술연구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21세기 이른바 문화의 세기를 맞아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콘텐츠 활동 등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박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달한**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학,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지난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미래를 열어갈 수레요, 솟대요, 열쇠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적 고민과 사회적 고민을 함께해나갈 때만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의 미래가 열린다고 봅니다. 처음에 솟대를 세우자 '막연히 민족·민중·지역이란 화두를 바탕으로 솟대(지향)를 세워보자는 취지의 행사를 했던 것이 그 다음해에는 그 솟대를 동학에서 찾아보자고 생각을 갖게 되었던거죠. 우리 사회의 많은 이론들이 서구에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것으로 텍스트를 삼아 새로운 사회운동의 길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끝으로 못다 한 얘기라든가, 기념재단 혹은 전국의 기념사업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념사업의 대선배인 문부장님이 기념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이제라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문부장님이 지역의 기념사업단체에서 20년 넘게 기념사업에 몸담아 왔으니까 누구보다도 지역단체의 사정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기념재단이 많이 가깝게 느껴지고 의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재단에서 지역단체를 이렇게 찾아온 것도 참 좋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전국의 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도 지역단체 활동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되어 기념사업의 전국화 구현에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선생님들과 전국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기념재단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달한 보은계승사업회 회장



## 지역단체 포커스

###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회장 김원철)는 부안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0월 28일(금) 부안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부안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는 부안군과 부안문화원이 후원하였다.

###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



지난 11월 5일(토)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황의동)는 갑오년 당시 농민군 훈련장이었던 남원시 요천변(蓼川邊)에서 [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방아치전투에서 희생된 농민군 추모를 위한 추모제는 천도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방아치전투는 1894년 11월 14일 농민군과 운봉의 박봉양 민보군의 격전으로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후퇴하였다.

### 제26회 내포동학농민혁명군추모제



지난 10월 29일(토) 충청남도 태안군 백화산에 자리한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에서 [제26회 내포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가 열렸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최기중)에서 개최한 추모제에는 각계각층의 내외귀빈과 참여자 유족 및 태안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 고창군, 제13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원장 진재교)은 지난 11월 10일 성균관대학교600주년기념관에서 [제13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봉준 장군 생가 터의 역사적 의의와 활용 및 보존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 지역단체 포커스

### 제122회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제



지난 11월 11일(금)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서 있는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고성산성에서 [제122회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제]가 거행되었다. 천도교 중앙총부(교령 이정희)가 주최하고 고성산동학혁명기념사업회(회장 강호경)가 주관한 이날 위령제에는 천도교 관계자를 비롯하여 김제홍 하동부군수 등 지역의 기관·단체장, 하동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2016 우금티 추모 제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박남식)가 주최한 [2016 우금티 추모 제례]가 11월 13일(일) 공주 우금치 전적지에서 열렸다. 추모 제례는 우금티기념사업회 임원 및 회원을 비롯하여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공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제122주년 기념대회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는 11월 19일(토) 삼례봉기 역사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제122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내외귀빈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기념사업단체 회원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 기념식과 추모제례, 가족건강 걷기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10월 2일(일)	뉴스1	고창군, 4일부터 청소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교육
10월 5일(수)	연합뉴스	'갑오군정실기'로 본 동학혁명...동학혁명재단 6일 학술대회
10월 5일(수)	한겨레	동학혁명 진압 당시 "선봉장 이규태, 일본군 장교에게 지휘 받아"
10월 5일(수)	뉴스1	12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11일 백범김구기념관서
10월 5일(수)	새전북신문	동학지도자 성두한 행적 밝혀져
10월10일(월)	광주일보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활발 ... 학술대회 잇따라 열려
10월17일(월)	연합뉴스	'전봉준 장군 추정 묘'발굴에 학계 주목..."내달 결과 발표"
10월21일(금)	포커스뉴스	홍천군,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추념식
10월21일(금)	뉴스1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 인문학·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10월27일(금)	전북도민일보	유성엽 위원장,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월31일(월)	아시아투데이	김천시, 동학농민혁명 추계 학술대회 개최
11월 7일(월)	한겨레	전봉준 장군 추정 무덤 발굴조사 중단
11월 7일(월)	충남일보	'제1회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 열려
11월 9일(수)	세계일보	정읍 옹동면 '장군천안전공지묘' "녹두장군 묘소 아냐" 결론
11월11일(금)	포커스뉴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11월13일(일)	경남일보	하동 고성산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봉행
11월16일(수)	뉴스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9일 역사토크 콘서트 개최
11월18일(금)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역사토크 콘서트, 19일 동학농민혁명 교육관서
11월20일(일)	국제뉴스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삼례2차봉기 기념대회
11월21일(월)	전북일보	고창 해리서 25일 동학농민혁명 워크숍
11월23일(수)	뉴스1	전봉준 제자가 쓴 동학농민혁명 회고록 기념재단에 기증
11월27일(일)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재창립대회 개최
11월29일(화)	연합뉴스	동학학회, '동학혁명과 생명평화사상' 학술대회
11월29일(화)	국민일보	전주시, 동학혁명 역사벨트 조성 착수
12월 3일(토)	연합뉴스	"무장기포 널리 알린다"...고창군 동학혁명교실 '활성화'
12월 7일(수)	세계일보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기념 동계학술대회 열려
12월 7일(수)	연합뉴스	'갑오군정실기' 완역...동학혁명재단 '동학혁명 신국역총서' 발간